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4주일·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제30권 52호(다해) 2010.11.21

[묵상]



전능하신 그리스도
<안토니 수녀, 1970년, 그리스도왕 주교좌성당, 리버풀, 영국>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될
진리와 생명의 나라,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
저의 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보리이다.

허나, 그 날을 맞이하려면
그 죄인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열자리를 놓고 싸우던 제자들도,
칼로써 지상의 왕으로 모시려던
열혈당원들도 깨닫지 못한
십자가에 달리신 유다인의 왕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에서
왕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죄인이 부럽습니다.

저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구세주는 필요 없다며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고 외치는
망나니들 속에 제가 있나이다.

그 날이 오기 전
제 입맞대로 그린 당신의 모습이 아닌
당신께서 보여주신 모습으로
당신을 저의 임금으로 모시게 하소서.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박덕기 카타리나, 이호예 안젤라, 이성원 바오로
	(생) 오월봉 데레사, 손명복 그라시아, 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 미사	(연)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홍주희 안나, 이은완 야고보, 서인수 요셉, 고준희 제임스, 석아자 리나, 엄은섭 도로테오, 정미영 미카엘라의 조상님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최광욱, 김영수 데레사, 김시형 시릴로, 이현호 요한, 이진심 데레사, 죽은 레지오 단원들과 연옥영혼들
	(생) 이덕철 루카 & 이순자 비비안나, 최옥희 데레사, 홍정순 세실리아 & 박진숙 엘리사벳, 정열모 미카엘 가정, 송민영 & 김나영 가정, 방미숙 마리아, 이기숙 엘리사벳, 우영희 엘리사벳, 이복임 엘리사벳, 이귀분 안나, 정상봉 요한 & 정숙 율리아, 김충섭 마틴, 김병조 마틴, 이재정 사도 요한 & 인숙 베로니카, 반나영 체칠리아, 고규재 체칠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홍석인 체칠리아, 이문오 요한 & 박외자 스텔라,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 하권(2 Samuel) 5,1-3

화답송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세.



기 뻐 - 하 며 주 님 의 집 에 가 - 세.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제 2독서 콜로새(Colossians) 1,12-2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 음 루카(Luke) 23,35-43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41	207
봉헌	261	217
성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304
파견	207	238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가증할 죄악인 낙태

"인간 배자의 생명과 그 은전함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부당한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개체의 건강 증진과 생존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조치에 대해서는 합당한 것으로 지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배자나 태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출생한 아기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단죄는 살아있는 인간 배자와 태아들을 "생물학 실험 재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이식을 위해서 조직이나 세포의 제공자로 사용하는 모든 과정들에도 적용된다. 때로 이 배자와 태아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특별히 "생산"되기도 한다. 비록 타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해도,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태아 진단 기술들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기술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기형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기술들이 지니고 있는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확하고 체계적인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기술들이 아기와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위험을 가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초기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때, 이러한 기술들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날 태아 치료의 가능성은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기형을 지닌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택적인 낙태를 받아들이는 우생학적인 의도로 이 기술들이 이용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부끄러운 것이며, 철저히 비난받아야 할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오직 "정상(正常)"과 신체적 안녕의 범위 내에서만 측정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유아 살해와 안락사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오한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관용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용기와 침착함은 생명에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웅적인 증언을 담고 있으며,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자신과 타인들에게 소중한 그 무엇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교회는 엄청난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아기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부부들 곁에 있다. 또한 교회는 장애나 질병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들을 입양을 통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가정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계속)

나폴레옹 황제나 십자가의 왕이냐?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일 때 스페인을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초엽, 스페인의 왕인 카를로스 4세와 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왕자 페르난도와의 싸움에 나폴레옹이 개입되어, 스페인을 정복하려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1808년 5월 2일과 3일에 강제로 스페인 왕가를 “바흔”이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시위대와 프랑스 군대가 부딪쳤는데, 수많은 시위대가 이틀에 걸쳐 쏜살되어 죽어갔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작은 충돌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그 유명한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1808년 5월 2일”과 “1808년 5월 3일”입니다.

이 사태로 나폴레옹은 스페인 정복에 발판을 얻어, 자신의 형을 조제프 1세라는 이름으로 스페인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쟁의 명목은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주의를 스페인에 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봉건주의적 특혜를 폐지하고, 전체 교회의 3분의 1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복은 영국의 개입과 스페인 민중들의 저항으로 실패하게 되고, 결국 나폴레옹은 1815년이 전쟁의 패배로 왕위에서 물러나 성 헬레나 섬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에서 수많은 왕들은 자신의 지배욕과 명목으로 수많은 인명을 사살하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려다, 실패와 쓸쓸한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역사에서 보인 그런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약의 오랜 예언속에 나타날 “왕”은 결국 십자가의 처절함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제국을 지배한 위세 당당한 황제 나폴레옹 같은 위용을 보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달린 죄수에게도 모독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표징이 무의미한 상태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외침이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이 믿었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라고 빈정거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지배자의 위풍당당한 나폴레옹 같은 왕,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 가시는 왕, 어느 왕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세상 왕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아니 그 왕들은 단지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 속에,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히 신앙인들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베풀어주신 모든 표징이 그 의미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시라는,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한낱 영웅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의 법칙으로 다스릴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왕께 경배하도록 초대하고, 그들을 진정한 왕의 나라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 왕께 경배드리세! 아멘.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 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진향 아네스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오늘 11월 21일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걸어온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모습을 되돌아보며,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11월28일 대림 제1주일을 겸손되이 맞이합시다. 이 때부터 전례력은 '가해'를 따르게 됩니다.

◆ 독감 예방주사 추가 접종

지난 주에 이어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추가 접종합니다.

- 일시: 오늘 주일(21일) 학생미사 후, 친교장
- 대상: 만18세 이상, 계란 알러지가 없고, 감기기운이 없는 분, GBS(심한 마비성 질환) 병력이 없으신 분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주제(Theme)'공모 28일 마감

2011년 2월6일로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어떤 주제(Theme)를 행사표어로 삼을 것인지 교우 여러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내용을 예를 들면 영적성숙, 감사, 일치, 미래지향 등...을 표현한 것이면 되겠습니다.

- 공모 마감: 11월28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 당선작에는 '깜짝 놀랄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교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시편 67:7)

- 일시: 11월2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롱비치 El Dorado E. Regional Park
- 주제: 로저 마호니 추기경
- 2부행사: 각 성당대향 민속놀이
- 주최: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교리반,기도회) 없습니다.

◆ 전신자 대상 대림 특강

- 일시: 11월28일/12월5일 주일 오후 1시 성전

- 강사: 이장환 마르티노 신부님
- 내용: 성경공부반 개설을 앞두고 성서 전반에 관한 강의

◆ 백삼위 골프회 송년 토너먼트

- 일시: 12월11일(토) 오전 9시20분
- 장소: 롱비치 Recreation Park 골프코스
- 문의: 정충로 안토니오 골프회장 ☎(310)323-8100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 한해를 마감하면서 백삼위 골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새로 개정된 메디케어 & 메디칼 건강플랜 설명회

2011년에 새로 개정되는 Medicare & Medical 건강플랜 설명회. 질의응답을 통해 새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보험전문가)

- 일시·장소: 12월12일(주일)오후 1시, 강당
- 내용: 65세이상 은퇴자, 노약자, 장애인 대상. Part C (MA), Part D(PDP), Medicare Supplement Plans
- 주관: 남가주 한인가톨릭 장애인복지회
- 연락처: 노장오 요셉 회장 ☎(213)387-3301,
조면식 바르톨로메오 총무 ☎(213)479-0066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장소: 12월12일(주일) 오후 3시, 성당
- 레지오 활동단원, 협조단원과 관심있는 교우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기 바랍니다.
- 문의: 최기남 야고보 꾸리아 단장 ☎(310)569-3940

◆ 성당 게시판 사용 안내

성당 현관과 후문에 설치된 게시판을 사용하실 교우들은 반드시 사무실에 등록후(사용목적, 게시기간 등) 안내문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성당 주차장 나무 14그루 정리

성당 주차장 중간 화단에서 자라던 나무들의 뿌리가 땅위로 솟구쳐올라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14그루를 베어냈습니다. 대신 관상용 작은 나무를 그 자리에 심을 계획입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21일(주일): 토런스 북 1/2반(콩나물밥 \$3)
- 11월28일(주일): P.V. 1반(육개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권태만	김관기	김성현	김 욱	김정엽	성전헌금	구자운	권태만	김관기	김 욱	김정엽	김준호
	김종렬	김준호	김형순	나경흠	남성철	노혜숙		김형순	나경흠	남성철	노혜숙	문충한	민소예
	문충한	민소예	박현주	배태임	성낙호	안태갑		성낙호	안태갑	이귀분	이상철	이영석	이재철
	오명섭	우영희	이귀분	이상철	이영석	이일길		이효세	정훈모	조소영	채양석	최길주	
	이재철	이정훈	이효세	임연조	정훈모	조소영							
	채양석	최길주											
	합계: \$7,975							합계: \$2,045					
미사헌금: \$2,774							감사헌금: 성낙호 김강훈						

공지사항

◆ 백삼위 자모회 소식

- 기금마련 판매행사 : 12월4일 특전, 5일 주일미사후
품목 :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
* 문의 : 윤은경 미카엘라 자모회장 ☎(323)717-4937
- 주일학교 미사시간 지키기 티켓 상품교환 행사 :
12월5일 주일수업 후 점심시간 천교장,
그동안 받은 'Early Bird Ticket'을 꼭 가져오세요.
- 자모회 송년모임 : 12월3일(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RSVP : 김유미 사비나 자모회부회장 ☎(310)738-5305

◆ 배론 청년회 회원 모집

"평범한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는~데~"

- 청년이세요?
-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백삼위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박소영 프란체스카 부회장 ☎(323)313-7255

남가주 소식

◆ 남가주 한인 가톨릭 영어권 청년회 연합모임

- 일시 : 11월25일(목) 추수감사절 야외미사 후
- 장소 : 엘도라도 팍 YAKACA 영어권 청년전용 텐트
- 행사 : 미사 후 점심 제공, 친선 자선 운동경기,
토마스 성당 이유진 신부님과 모임
- 문의 : 최애우세비오(청년연합회고문) ☎310-738-0230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연주회

- 일시 : 11월27일(토) 오후 7시
- 장소 : LA 그레고리 한인천주교회(922 S.Bronson Av.)
- 주관 : 미주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문의 : ☎(323)935-3429

◆ 남가주 올트레아 송년의 밤

- 일시 : 12월4일(토) 오후 6시
- 장소 : LA 성 바오로 성당(1920 S. Bronson Av.)
- 주최 : 남가주 한인천주교 꾸르실료 사무국
- 문의 : 백삼위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94-0276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8일(토) 오후 6시
- 장소 : Double Tree 호텔(13111 Sycamore Dr. Norwalk)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 대표부부 ☎(310) 347-1665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11월 사목회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배태임 안나 781-9199 11/12(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정웅 요한 530-7702 11/12(금)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1/12(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교복 래오 328-1817 11/12(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인두 토마스 (424)241-5988 11/19(금) 오후 7시30분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전영선 크리스티나 212-7543 11/8(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1/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합동 반모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합동 반모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차인수 안드레아 256-6001 11/12(금) 오후 7시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금자 데레사 800-3939 11/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귀분 안나 518-1736 11/20(토)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84-3289 11/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1/13(토) 오후 6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1/12(금) 오후 7시
	4	강숙정 도미니카 541-0767	김전재 바오로 541-5840 11/9(화) 오전 10시30분 성당

2010년 성서주간 담화문 '생명의 말씀'(요약)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이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며 당신의 모상과 숨결을 넣어주시고, 손수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어 인간이 가장 적합한 자연 환경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창세1-2장) 이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본성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원형 상태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의 그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초대받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태 4,18-22).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마태 5,2-7,27),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 품시 놀랄 정도입니다.(마태 7,28-29).

생명의 말씀은 인간에게 내면의 위로뿐 아니라,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 하느님과 모든 이웃과 화해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인간을 품고 있는 자연과 우주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자연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자를 내어주시는 정도로 사랑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요한 3,16). 사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동반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자연재해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환경 재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한 23세 교황께서는 회칙 「어머니요 스승」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자연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선의를 위하여 인간에게 자연을 맡긴다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1963년에 발표한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도 이런 가치들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창조물들은 단지 인간의 필요를 위한 도구적 존재가 아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인류의 빛」, 36.41.48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1987년에 발표하신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모든 종류의 사물을 인간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각 사물의 본성과 그것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상호연관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밝히면서 환경 보전을 위한 ‘도덕적 요청’을 하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교황님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지면을 환경 문제에 집중하십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기후 변화, 사막화, 농촌의 황폐화,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 생물 다양성의 상실, 자연재해 증가, 적도와 열대 우림 지역의 남벌 환경 난민 증대 등의 악화로 나타남을 심각하게 걱정하십니다.(1-4항).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 선포로써 교회가 가진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연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곧 주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도전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서주관을 맞아, 그리스도 말씀의 제자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나갑시다.

우리 먼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생명력으로 충만해집시다. 말씀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작은 마음들을 모아 함께 연대하면서 지구와 인류를 하느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빕니다.

◆ 2010년 11월 21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형우 아빠스